

문화다

④ 쌀은 미래다

88가지 대 변신

유기농 오색쌀로 연 13억 매출



을 낮추는 쌀 등 약과 음식은 뿌리가 같다는 '약식동원(藥食同源)' 상품으로 거듭났다.

쌀의 변신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가공식품으로 제2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본격적으로 쌀 가공식품이 등장한 것은 기린이 1987년 '쌀로벌' '쌀로분'이란 제품을 출시하면서부터. 이후 1996년에 CJ제일제당이 '햇반'이란 즉석밥을 내놓고 1999년에는 웅진식품이 '아침햇살'이란 쌀음료를 출시하면서 쌀 가공식품의 새로운 영역이 개척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쌀국수, 쌀라면, 쌀빵, 쌀고추장, 쌀을 넣은 카레, 쌀누리로 만든 식용유,



즉석밥·쌀 음료·쌀라면

가공식품 시장 1조원

삼푸·세제 등으로 확장

전분 대신 쌀가루를 첨가해 만든 소시지와 햄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면서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이끌고 있다. 그 결과 쌀 가공식품 시장 규모는 1조원에 이를 정도로 커졌다.



4면에서 계속

계르마늘 광석을 이용해 재배한 '계르마늘 쌀', 계곡질에서 추출한 유기질 비료로 재배한 '키토산쌀', 버섯종균을 배양시켜 만든 '상항버섯 쌀'과 '동충하초쌀' 등 재배농법을 달리하고 영양성분을 첨가된 기능성 쌀에서 다이어트 쌀, 당뇨 쌀, 성장촉진 쌀, 암예방 쌀, 노화억제 쌀, 혈압

이제 쌀은 먹고 마시는 식품에서 벗어나 쌀과 상관없을 것 같은 삼푸, 주방세제, 화장품, 포장용기 등 '고부가 상품'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쌀로 만든 삼푸와 린스, 조선시대 궁중에서 이용하던 쌀뜨물 미용법에서 착안해 만든 화장수, 발아현미 추출물을 사용한 친환경 주방세제 등 다양한 형태로 생활 속에서 함께 하고 있다.

쌀이 변한 것은 형태뿐만 아니다. 사람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영역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우리 농업을 살리는 효자로 '사회적 존재가치'를 인정 받고 있다.

이제 쌀은 미래의 희망산업으로 후손들에게 새로운 꿈을 안겨주고 있다. /이민기자 emlee@kwangju.co.kr



강선아(여·26)씨가 15일 보성군 벌교읍 마동마을 앞 자신의 논에서 직접 재배한 벼를 바라보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강씨는 고인이 된 아버지의 대를 이어받아 유기농법으로 쌀을 재배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유기농 쌀 농사요? 당연히 힘들죠. 하지만, 소비자 건강도 챙기고 수입도 괜찮은데... 진정한 고부가가치 벤처사업이에요."

보성군 벌교읍 마동마을에 사는 강선아(여·26)씨는 3년 전부터 '생명농법의 권위자'인 아버지 고(故) 강대인(당시 59세)씨의 대를 이어받아 유기농법으로 쌀 농사를 짓고 있다. 유기농 2세대로 9만9173.5㎡의 농사를 짓는 대농이기도 하다.

강씨는 유기농 쌀은 물론 매실·배추·살구·고추장·된장과 유기농 전수 교육사업으로 연매출 13억이 넘는 '억대클럽' 회원이다. 스물 여섯의 적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모를 심고 잡초를 뽑으며 경운기를 직접 모는 '처녀 농사꾼'이다.

그녀가 쌀 농사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2007년, 유기농법과 생명농업 연구에 몰두하던 부친이 단식기도 중 쓰러지면 서부터다. 당시 강씨는 경기대를 졸업한 뒤 독일 유학을 앞두고 있었다.

그는 한 달만 아버지의 농사를 돕기로 마음먹고 고향을 찾았다. 몸을 추스른 부친이 한국벤처농업대학에서 '친환경농법과

'처녀 농사꾼' 보성 마동마을 강선아씨

선친 故 강대인씨 뜻 이어 친환경 농사

"쌀은 노력한 만큼의 보람 안겨줘"



우리 땅'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는 모습을 지켜본 강씨는 미래 고부가 가치 산업인 유기농 쌀 농사에 자신의 인생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농민 스스로 '쌀은 주식이자 건강식품'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임버릇처럼 말씀하시던 아버지가 떠오른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강씨의 부친은 올해 1월 30일 단식기도 중 숨졌다.

홀로서기에 나선 강씨는 요즘 아버지에게 배운 그대로 유기농 쌀 농사를 짓는데, 열심이다. 화학비료와 제초제 대신 미역과 다시마 등 해조류로 병충해를 없애고, 인분으로 잘 씩힌 퇴비와 깻묵으로 지력(地力)

을 돋우며 맛 좋은 유기농 쌀을 재배하고 있다.

이 같이 재배된 쌀은 고가에 판매되고 있다. 유기농 쌀 80kg 기준 한 가마니당 가격은 40만원으로 일반 백미 18만~20만원(선) 보다 두 세배 가량 높다.

주력상품인 오색(흑·녹·적·백·황색)쌀 중 흑·녹·적미는 80kg 기준 한 가마니당 80만원, 고가이지만, '건강식품'이라는 인식이 자리하면서 없어서 못 팔 정도다. 처음에는 그녀도 농사가 힘들어 포기하려고 했었다. 그 때마다 아버지를 떠올리며 이를 악물고 다시 시작했다.

"모 심고, 피 뽑고, 추수하고... 유기농 쌀

농사 지으라, 교육사업하라, 손이 열 개라도 부족해요. 농사만 지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종자 연구도 해야 하고, 관로도 모색해야 하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농사와 사업, 종자 연구를 병행하는 강씨는 다음달 '키스미'라는 오색 유기농 쌀 첫 출시를 앞두고 있다. '키스미'는 오색쌀을 소비자의 기호와 입맛에 따라 섞어 판매하는 1~2인용 맞춤형 포장 쌀이다.

첫 작품이라 그런지 잔뜩 기대하는 눈치다. 그녀에게도 작은 소망이 있다. 자신이 직접 재배한 유기농 쌀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쌀 재배 방식·관료·종자 개발 등 하나하나 서서히 개선해 나가고 있다.

"쌀 농사만큼 정직한 사업은 없는 것 같아요.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거든요. 현재는 되레 일반 사무직보다 농사가 더 쉬운 것 같아요. 천상 농사꾼 체질이지요." 그녀가 모처럼 환한 미소를 지었다. 웃는 그녀의 미소만큼이나 우리나라 농업도 밝아보였다.

/보성=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선성근기자 sun@

즐거워한가위

넉넉하고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님들의 가정에도 늘 한가위처럼 풍성함이 가득하시길
국제보청기 임직원 일동이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 매우 잘 들립니다.
- 안보입니다.
- 가격이 맘에 듭니다.



- 본 점 : 062-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
- 순천점 : 061-752-9940
- 목포점 : 061-262-9200
- 총장점 : 062-227-9970
- 익산점 : 063-851-2422

